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음 8월 5일) 제16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와 해바라기

가을을 해갈하는 반가운 가을 비가 내리는 지난 2일 오후 어느 도로가에는 비에 젖은 해바라기가 고개를 꼭 숙인 채 서 있다.

‘조선 분청사기 가마터’ 온전한 형태로 발굴

고창서 유물과 함께

고창군에서 조선 시대 전기 분청사기 가마터가 온전한 형태로 발굴돼 관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창군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분청사기요지(사적 제250호)에서 온전한 형태의 분청사기 가마 2기, 공방시설 1기, 폐기물 퇴적구 6곳을 발굴 조사한 뒤 지난 2일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가마는 재를 쌓는 ‘회구부’, 불을 때 는 ‘연소실’, 그릇을 굽는 ‘소성실’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발굴 조사된 수



가마터에서 발굴된 유물.

동리 5·6호기는 이 모습을 온전한 형태로 간직하고 있다. 반지하 구조를 가진 가마는 전체 길이가 28~31.6m, 경사도는 15~16도 실측됐다.

가마 주변에서 많은 분청사기 제작 도구도 발굴됐다. /고민형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큰 기여

지난해까지 633가구 27억4900만원 무이자 지원

전주시가 추진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8월말 현재 총 122가구에 4억98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 주거지

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3가구에 27억49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왔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전전주 콜센터(063-222-1000)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아·태 지역 지방정부 한자리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구(ASPAC) 총회가 5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6개국 지방정부의 단체장 등 140개 단체에서 500명이 참석하는 이 총회는 8일까지 나흘간 도시의 새로운 어젠다를 ‘지역·생명·문화’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생존 전략을 주제로 일본의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돗토리 현지사가 기조연설하며 리더십과 도시재생,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변화로 점점 가라앉으며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볼디브와 키

UCLG 아·태지구 총회, 오늘 새만금컨벤션센터서 인구감소 따른 지방소멸 위기·생존 전략 논의

리버티 섬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원희룡 UCLG ASPAC 회장, 홍은식 행정자치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UCLG는 1913년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와 기술 교류, 지방자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140여개 국가 1천여 개의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지방문화 등 세계 지방정부 간 우호와 교류 증진에 힘쓰고 있다.

UCLG 아시아·태평양(ASPAC) 지부는 세계지방정부연합 9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공동의 가치와 목표 및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7명, 사무총장과 명예대

사를 두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4년 9월부터 이 아·태지구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대구에서 이 총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도는 이번 총회가 국내에서는 2005년 대구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새만금·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모험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세계를 누비는 전대인

교육여건 전국 4위(중앙일보 2015)

전북대가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01 한국인 최초

신지후 (전기공학과 14학번)

세계 3대 프로 사이클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와 '지로나 디탈리아' 코스 한국인 최초 완주

02 책을 쓴다

김민아·조세희·공경진·조혜령 (정치외교학과 14학번)

국제개발협력 현장 체험기를 책으로 엮은 전방지속 여대생 4인방

03 6,000km

이우찬 (무역학과 09학번)

미국 뉴욕에서 LA까지 6,000km를 70일간 자전거로 횡단한 전대 모험생

04 청춘 다큐

김유섭·이형로 (신문방송학과 10학번)

모터사이클로 전국을 일주하며 KBS와 '청춘 다큐'를 제작한 학생들